

- 1 2
- 1,2, 로사토 일라노의 외관, 명품습들 이 일집한 지역에서 금빛을 부각 시켜 로사도만의 럭셔리함으로 시 성을 끝다.
- 1, 2. The concept for the Rosato Retail Design Stores derives from the brand's slogan, gold is glam.

The concept for the Rosato Retail Design Stores derives from the brand's slogan, gold is glam.

We wanted the space to resemble a gold mine, a very luxurious, glamorous gold mine. The white ceramic walls have an organic form as if handmade. On their surface are organic shaped 'holes' carved out to form the display window. The rest of the walls and ceiling are made of gold leafs, the floor is covered with off white color moquette, the lighting is very soft and elegant, all lighting fixtures are hidden.

In the center of the room there is a cascade of gold 'particles' coming down from the ceiling as if the elaborated gold excavated from the walls.

All the materials used are precious materials that reflect the use of gold, silver and diamonds in the jewelry. Some of the products have a sense of one of a kind or hand made products and so does the space that seems to be molded by hand. The space is very clean and glamorous.

Rosato Milano

로사토 밀라노 _ 금빛 공간의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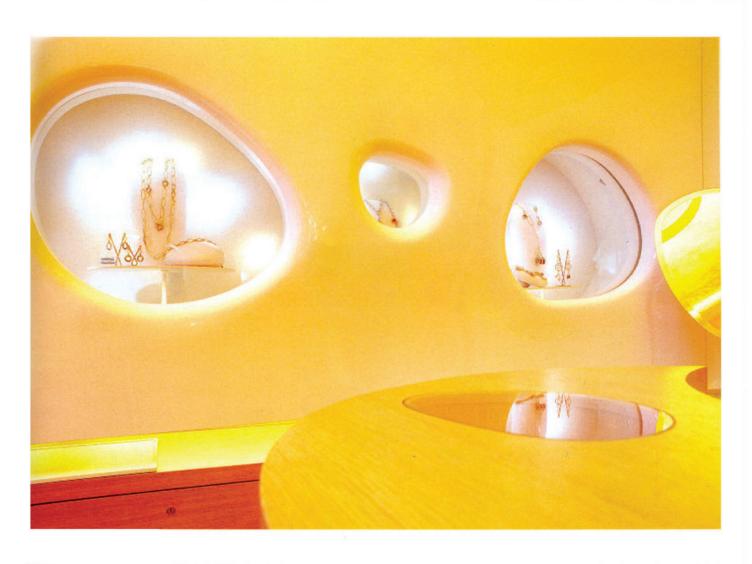
디자인 스튜디오63 디자인 & 아키텍쳐 위치 이탈리아 밀라노 몬테 나폴레오네 1 면적 20㎡ 바닥 우드 플로링 벽 세라믹, 금 조각

Design Studio63 Design & Architecture Location Montenapoleone 1 Milano Italia Area 20m2 Floor Wood Flooring Wall Ceramics, Gold Particles Photo Yael Pincus



- 1, 미니멀한 공간은 삼·하루 분리되었다. 제품이 전시되는 곳은 화이드 걸러로 제품을 부각시키고 그 외의 천정부분은 금빛으로 된 임으로 들 러 금빛의 매혹적인 콘셉트를 더욱 본침적으로 보여준다. 2. 카운터
- The walls and ceiling are made of gold leafs, the resr of wall is covered with white ceramic.





1 2 34

1~4. 유기적인 형태의 자유곡선형 벽 전과 디스플레이 선턴을 시라의 소재로 마무리하여 빛에 의해 여 러 각도로 비취지도록 하였다.

1~4. The white ceramic walls have an organic form as if handmade. On their surface are organic shaped 'holes' carved out to form the display window. 패션의 거리이자 명품의 거리인 몬테 나폴레오네(Montenapoleone)에 명품 주얼리숍 로사토가 새롭게 들어섰다. 명품숍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로사토만의 럭셔리함을 공간에 담았다.

'매혹적인 금빛' 이라는 콘셉트로 디자인된 이 공간은 쥬얼리의 이미지를 시각화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쥬얼리의 다양한 형태와 반짝임을 소재를 통해 풀어내었다. 딱딱하고 평면적인 벽면대신 손으로 빚은 듯한 유기적인 형태의 자유 곡선을 두고 이를 세라믹소재로 마무리 하여 조명에 의해 빛이 반사되어 보석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화려한 장식대신 화이트 컬러와 소재의 반짝임으로 보석의 화려한 느낌을 공간에서 전달하고 있다. 또한 미니멀한 내부 공간을 상·하로 분리하여 제품이 전시되는 곳은 화이트 컬러로 처리하여 제품을 부각시키고 그 외의 천장부분은 금빛으로 된 잎으로 둘러 금빛의 매혹적인 콘셉트를 더욱 본질적으로 보여준다.

로사토는 지나친 화려함으로 내부 공간에 집중하기 보다는 유기적인 형태의 벽면과 자유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 선반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열된 제품들로 시선을 유도한다. 마음으로 공간을 느끼고 눈으로는 제품을 즐기는 즐거움을 주는 공간 디자인을 보여준다. 📆

취재 명선이 기자 사진 열 평구스





MARU jun08

